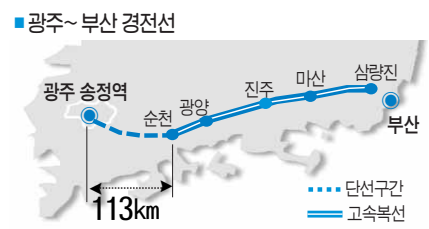


## 칙칙폭폭 7시간 ‘눈물의 경전선’

KTX 시대 ... 개통 80년 광주~부산 간선철도 시속 60km ‘저속철’

광주~순천 구간 113km  
 전국 유일 ‘단선·비전철’



시민 김모씨(45)는 최근 광주 송정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면서 몸도 마음도 파김치가 돼버렸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편할 것 같아 기차를 택했지만 실재론 ‘지옥철’이었다. 광주 송정역에서 부산 삼랑진 역까지 가는데 무려 6시간45분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기차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다음부터는 힘이 들더라도 승용차를 이용할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광주 송정역과 부산 삼랑진역(300.6km)을 잇는 경전선(慶全線)은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대표적 간선(幹線)철도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이 경전선을 또 다른 ‘눈물의 호남선’으로 지목하고 있다. KTX 전면 개통으로 광주와 서울이 불과 1시간 30분 거리로 단축됐음에도 경전선을 이용해 부산에 달으려면 반나절이 걸린다. 지난 1937년 12월 선로가 가설돼 노후화한 데다 노선 굴곡까지 심해 디젤 기관차가 시속 60km로 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정역에서 하루 한차례(오전 10시25분)만 운행한다.

‘경전선 저속철’의 원인에는 개통 80년을 바라보지만, 현재까지 단 차례도 선형이 개량되지 않은 광주~순천구간(113km)이 있다. 전체 구간 가운데 전철화는 고사하고 복선화(複線化) 사업도 시도되지 않았다. 같은 선로인 부산~진주, 동광양~광양 구간은 이미 복선 전철화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경전선은 정부에서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국가 4대 간선철도망(경부·호남·중앙·경전선) 가운데 유일한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다. 사실상 또 다른 호남차별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

네팔 10호 휴먼스쿨 신악인 엄홍길 ▶ 2면

4·13 총선 표밭 점검  
 광주 북구를 선거구 ▶ 5면  
 광주 시간 속으로  
 음악감상실 베토벤 ▶ 18면

부는 공사비 2조304억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복선화가 어렵다면 단선(單線)을 보강해 전철이 오갈 수 있는 전철화(電鐵化) 사업이라도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현재의 디젤 기관차를 전철로 대체하면 광주~부산 구간을 2시간대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과 광주를 전철로 연결하면 영·호남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시는 염두에 두고 있다. 교류 물꼬가 터짐으로써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지역 문화자원으로 영남지역 관광객을 끌어모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정부는 시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반기 사업에 포함시켰다. 이후 사업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사업착수의 전제조건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제약요건 때문에 예비타당성 평가결과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이 사업은 좌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면 제3차 국가철도망사업(2016년~2025년)으로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애가 탄 운전자들이 직접 나서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역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최대 현안사업이 선거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광주시민을 포함해 정치권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북관계 긴장 고조 속 신병 입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 남북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광주 시 북구 삼각동 3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열린 신병 입영식에서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나영무기자 mjna@kwangju.co.kr

##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北 체제 변화시킬 것”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반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것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



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

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 이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도 최근 안보와 경제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또 게리맨더링? ... 선거구 획정 막판 힘겨루기

인구 산정 기준일 2015년 12월 말...장흥·강진·영암 유지될 듯  
 광주, 남구 일부 동구와 합쳐...보성·고흥, 무안·신안 조정 관심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획정을 위한 인구 산정 기준일을 지난해 12월 말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선거구 획정이 더욱 복잡하게 됐다. <관련기사 3·4·5면>

16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시정팀은 최근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산정 기준일을 지난해 12월 말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광주의 경우 현 지역구수 8개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전남에서는 기존의 11개에서 10개로 지역구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는 남구 지역의 일부를

동구와 합쳐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선거구 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게리맨더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인구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되는 광주 북구갑과 북구을의 경우 북구를 일부 지역을 떼어 북구갑으로 넘겨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엔 인구 산정 기준일이 지난해 12월 말로 됨에 따라 그동안 사라질 것으로 검토됐던 장흥·강진·영암이 하한인구를 넘길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보성·고흥과 무안·신안

2개의 지역구만 인구 하한선을 못 넘어 조정대상 선거구로 남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일각에서는 영광·함평·담양·장성에서 합평을 떼어 무안·신안에 부쳐 선거구를 살리고, 대신 고흥·보성에서 보성은 장흥·강진·영암으로 불리고 고흥은 순천 등으로 불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고흥이 지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진 순천 등과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지적도 있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무안·신안에서 무안과 신안을 인구 선거구로 불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역시 역시 선거구를 만들 어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약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 때문에 전남지역 전체 선거구를 모두 흐트러 놓고 선거구를 만들어 1석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이제 더 더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안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없고 현재는 오리무중 상태”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LEXUS HYBRID ZERO

##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광주 전시장 : 080-384-7733(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 전주 전시장 : 080-263-774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 | www.hyosunglexus.co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ES 300h(에기량 2,494cc, 공차중량 1,685kg, E-CVT 변속기), 복합연비 : 16.4km/ℓ(도시상연비 : 16.1km/ℓ, 고속도로연비 : 16.7km/ℓ), 복합CO<sub>2</sub> 배출량 : 103g/km, 등급 :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위기관제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브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도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LEXUS AMAZING IN MOTION